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문의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담당자 :전북학연구센터 김동영 센터장
(063-280-7174)

보도시점 : 2022년 4월 29일(금)부터

전북학을 이끌고 나갈 “2022년도 전북학 우수 학위논문 선정자”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 개최

- 전라북도 관련 우수 연구자 선발과 연구성과 홍보
- 신진연구자 지원을 통해 전북학 후속세대 양성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 전북학연구센터는 4월 29(금)에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“제3기 전북학 우수 석박사 학위논문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” 를 개최한다.
- 이번 시상식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석사 1인, 박사 1인 총 2인이 선발됐다. 석사에는 김미라(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) 연구자의 『기억과 향수를 통한 골목재생 연구』, 박사에는 신귀백(원광대 한국문화학과) 연구자의 『일제강점기 이리 관련 일본인 저작 연구』가 선정됐다.
- 전북학연구센터에서는 전북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우수한 연구를 진행하여 전북의 뿌리와 정신을 발굴한 과제를 수상작으로

선정했다. 이를 통해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- 수상자는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가 발행하는 상장과 함께 석사는 1인당 2백만원, 박사는 1인당 3백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는다. 또한 선정된 연구논문은 전문가 3인의 평가를 거쳐 올해 8월 발간 예정인 <전북학연구> 6집에 수록될 예정이다.
- 해당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참석인원만이 참석하며, 시상식과 더불어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성과발표회 자리도 마련됐다.
- 수상자들의 발표 이후에는 이정덕(전북대 명예교수) 좌장을 중심으로 김종수(군산대 교수), 이정욱(전주대 교수), 박정민(전북대 교수)이 참석해 수상자들의 연구에 대한 논평을 진행한다.
-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회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총 12인의 신진 연구자가 발굴됐다.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은 “신진 연구자들이 천년 전북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경쟁력 있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” 라고 밝혔다.